

이승윤·안산·최미선 양궁 태극마크 '명중'

〈광주 남구청〉 〈광주여대〉 〈순천시청〉

광주서 국가대표 2차선발전

남자부 이승윤 3위

여자부 안산 2위·최미선 5위

평가전 치러 상위 1~4위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광주·전남 양궁계 스타들이 이번 없이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윤(남구청)은 지난 26일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2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에서 종합배점 44점을 기록, 3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여자부에서는 안산(광주여대)이 배점합계 53점으로 2위, 최미선(순천시청)이 42점으로 5위를 기록,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승윤은 "그동안 수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 치렀지만 항상 '처음처럼'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면서 "긴장하지 않고 평정심을 지켜 한발 한발 집중하다보니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남은 두 차례 평가전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회전부터 꾸준한 성적을 이어오며 태극마크를 지닌 안산은 "도쿄올림픽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 다소 부담도 됐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의 힘으로 일주일간의 힘든 여정을 이겨냈다"며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매 경기 집중, 아시안게임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 지난 23일 16명을 가리는 2차 선발전 1차 관문에서 16위를 기록했던 최미선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5위에 오르며 3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했다.

최미선은 "긴장과 부담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순간에 집중하다보니 회전이 거듭될수록 내재된 잠재력이 발휘된 것 같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선발전에서 남녀부 1위는 김우진(청주시청·62점), 강재영(현대모비스·63점)이 차지했다.

남자부는 지난해 국가대표 김우진(청주시청·1위), 오진혁(현대제철·2위), 이승윤(남구청·3위),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4위), 김제덕(경북일고·5위), 한우탁(인천계양구청·8위)이 태극마크를 지킨 가운데 이승신(현대제철·6위), 장재환(사상구청·7위)이 새로 합류했다.

여자부는 강재영(현대모비스·1위), 안산(광주여대·2위), 정다소미(현대백화점·7위)를 제외한 임시현(한체대·3위), 이가현(대전시체육회·4위), 최미선(순천시청·5위), 김수린(현대모비스·6위), 이은아(여주시청·8위) 등 5명이 새롭게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2차선발전도 지난해 1차 선발전 통과한 남녀 64명의 선수가 기록경기, 토너먼트, 리그전 등 다양한 방식의 1~3회전 경기 결과에 따라 남녀 각각 16명이 가려졌고, 이어진 4~6회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남녀 각 8명만이 국가대표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한편, 3위로 16명에 합류하며 태극마크 사수를



최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단 최미선(왼쪽부터), 안산, 이승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노렸던 오예진(광주여대)은 손가락(중지)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투혼을 발휘했으나 13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2022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남녀 각각 8명의 선수들은 내달 4~8일(예전), 17~21일(원주)에서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치러 상위 1~4위 선수들

이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의 주인공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챔피언전 진출

골키퍼 박조은 선방쇼·강경민 12골 맹활약... 팀 창단 후 첫 개가 SK에 32-27 승리...삼척시청과 29·31일 두차례 챔피언 결정전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이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7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SK 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32-27(16-12, 16-15)로 승리,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3차례 만나 1승도 거두지 못한 SK에 통쾌한 설욕전을 펼쳐 승리의 의미가 더 깊었다.

광주도시공사는 29일과 31일 정규리그 1위 삼척시청과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이날 골키퍼 박조은은 15세이브(방어율 42.9%), 1어시스트로 경기 MVP로 선정됐다. 강경민은 무려 12골을 터트리며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광주도시공사는 챔프 결정전까지 진출해 또다시 새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에서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냈고 여세를 몰아 우승까지 바라보게 됐다.

광주도시공사의 종전 리그 성적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다.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일찌감치 상위권 전력

으로 짊어졌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 멤버들이 견재한데다 송해수 등 신인 보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규리그 득점왕, MVP를 거머쥔 강경민, 베스트7에 뽑힌 원선필, 김지현 등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일궈낸 선수들이 올해도 맹활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규리그에서 빼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난관을 헤쳐나왔다.

선수단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2경기를 몰수패한데다 선수들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오세일 감독의 빼어난 용병술과 선수단의 팀워크로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 도전을 위한 문턱을 넘어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배드민턴 코리아오픈 3년만에 순천시 개최

4월 5~10일 24개국 선수 참가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던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전 세계 24개국 3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2022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코리아오픈)가 열린다고 27일 발표했다.

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국

내 배드민턴 스타들이 출몰동했다.

여자복식에는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한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과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민스) 등 총 8개 조가 출전한다.

지난주 전영오픈에서 세계 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을 꺾는 이번을 연출했던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의 활약도 기대된다.

여자단식에선 한국 배드민턴의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32강에서 탈락했다.

김가는(삼성생명)과 심유진, 김효민(이상 인천국제공항) 등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복식에선 이용대-김재현(이상 요넥스)이 통산 7번째 코리아오픈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고성현(김천시청)-신백철(인천국제공항)이 이용대-김재현의 아성에 도전한다.

남자단식 허광희(삼성생명)와 이동근(당진시청),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인천국제공항) 등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1991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배드민턴 유망주의 산실 역할을 한 코리아오픈의 총상금은 36만달러(약 4억3000만원)다. /연합뉴스

전남체육중 복싱부 전국대회 '챔피언'



전남체육중학교 복싱부. 유은상(왼쪽부터) 지도자, 김태수·권민준·유태민·이승훈·임유민 선수, 이현주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회장배 전국중별복싱대회 금3·은1·동1 종합 우승

전남체육중학교 복싱부가 전국대회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체육중 복싱부는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중별복싱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태수(3년)는 -42kg급 결승에서 이승훈(대전가오중)을 만나 3-2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태민(3년)은 -46kg급 결승에서 최인우(운양신정중)를 만나 5-0 판정승을 거뒀다. 임

유빈(전남체육2년)은 -48kg급 결승에서 권종찬(대전가오중)에 4-1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민준(3년)은 50kg 결승전까지 진출했으나 준결승전에서 입은 손목 부상 때문에 경기를 할 수가 없어 기권,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승훈(2년)은 -52kg급 준결승에서 안현민(세종복싱클럽)에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종술 교장은 "코로나로 사태로 훈련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동계훈련에서 탄탄한 결과 올 첫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며 "이현주 감독님의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유은상 지도자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지도, 힘든 훈련을 묵묵히 이겨내고 잘 따라준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뜨거운 피
- 2관 뜨거운 피
- 3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더 배트맨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뜨거운 피
-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문물
- 7관 씨네케플 스펜서, 메리 미, 언차티드
- 8관 씨네케플 리디미 러브, 벨파스트, 에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2022.04.02.(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2022.04.27.(수)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